

전북지역 관광산업의 특징 및 활성화 방안

2025.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보도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작성자 : 기획조사팀 정원석 과장, 김재휘 조사역

조언자 : 이승철 기획조사팀장

 목 차**[요약]**

I. 검토 배경	1
II. 전북지역 관광산업 현황	2
III. 전북지역 관광산업 특징	5
①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5
② 수준 높은 먹거리	7
③ 열악한 숙박 및 교통	8
IV. 전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11
① 전북 관광자원과 먹거리를 융합한 복합 관광 활성화	11
② 숙박 인프라 조성	14
③ 관광지 접근성 개선	16
V. 결론 및 시사점	17

< 참고 >

- 참고 1: 생활 관광 관련 콘텐츠 사례
- 참고 2: 생태관광 자원의 고급화 사례
- 참고 3: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도입 사례

[요약]

- [검토배경]**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관광산업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관광산업은 다소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관광산업 발전도가 높은 강원 및 제주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전북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전북지역 관광산업 현황]** 전북지역의 관광산업 규모는 제주와 강원지역보다 작은 가운데 매출액과 관광산업 종사자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내국인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관광객이 회복되었으나, 관광산업 관련 소비지출액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소폭 적은 상황이다.
- [전북지역 관광산업 특징]** 전북지역은 강원 및 제주지역에 비해 ①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②수준 높은 먹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국보, 보물 등 국가유산은 1,007개(2024.8월 기준)로 강원(723개), 제주(406개)에 비해 풍부한 편이다. 또한 전북지역 관광객의 소비지출 중 식음료업이 차지하는 비중(69%)이 강원(57%), 제주(44%)에 비해 큰 편이며, 전북 지역먹거리 지수도 강원·제주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③열악한 숙박 및 교통은 전북지역 관광산업의 취약점이다. 선호되는 숙박형태인 호텔이나 휴양콘도의 수는 강원이나 제주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또한 주요 관광지로 이동 시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이 어려우며, 주차장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관광객의 교통접근성도 취약하다.
- [전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전북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①복합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전북의 미식·생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현지 주민의 일상을 공유하는 생활 관광 관점에서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제공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②숙박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유적지·생태관광 자원과 연계된 숙박시설을 조성하거나, 전북지역의 숙박을 치유 관광 및 위케이션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환버스·관광택시 등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③관광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공영 주차장을 확충하는 가운데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시내 교통 흐름과 관광객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 및 시사점]** 전북지역 관광산업은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수준 높은 먹거리를 보유한 강점이 있으나 관광산업 규모는 강원·제주와 같은 주요 관광 지역에 비해 작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유 관광자원을 활용한 복합 관광 상품 개발, 숙박 인프라 조성, 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 검토 배경

1.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관광산업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전대비 90% 수준을 넘어서는 가운데 관광산업 관련 소비지출액도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¹⁾
2. 그러나 관광산업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각 지자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기 지역의 특색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3. 전북지역은 전주 한옥마을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육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전북지역의 관광산업은 다소 정체된 상황이다.
4.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관광산업 발전도가 높은 강원 및 제주지역²⁾과의 비교를 통해 전북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2024년 9월 기준으로 코로나 기간 이전 대비 90%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

전국 관광산업 관련 소비지출액이 코로나 기간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

[그림 1.1]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그림 1.2] 관광산업 관련 전국의 소비지출액¹⁾ 추이



주: 1)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1) 2024년 9월 기준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등이 추세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계엄령 사태 이후 관광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계엄령 사태 이후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그 이전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2) 전북도 2024년에 강원 및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로 변경되어 행정구역 형태도 서로 유사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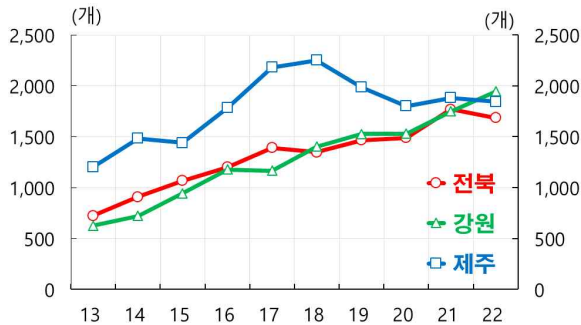
II. 전북지역 관광산업 현황

5. 전북지역 관광업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관광업체수 증가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22년에는 전국의 관광업체수가 증가한 반면 전북지역의 관광업체수³⁾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북의 여행업체수⁴⁾가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6. 강원지역의 경우 관광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2018년 이후 관광업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제주지역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큰 편인데 2017년 사드사태 이후 중국인 방문 관광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제주 관광산업이 큰 피해를 받게 되었다. 다만 2023년 이후 중국인 방문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인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제주지역 관광업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북·강원의 관광업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제주의 경우 2018년 이후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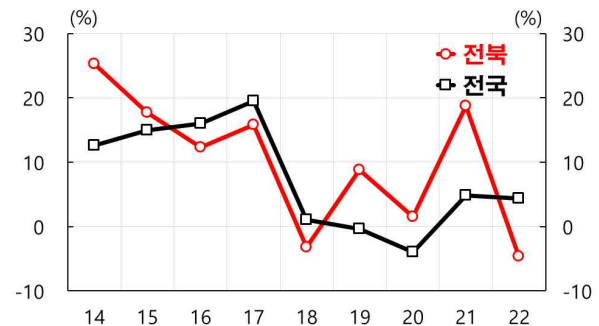
전북지역 관광업체수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그림 2.1] 전북·강원·제주의 관광업체수 추이



자료: 관광산업조사

[그림 2.2] 전북·전국의 관광업체수 증가율 추이



자료: 관광산업조사

7. 전북지역 관광산업 규모는 제주와 강원지역보다 작은 가운데 전북 관광산업의 GRDP 대비 매출액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⁵⁾ 전북지역의 관광산업 경제규모⁶⁾는 0.7%로 제주 및 강원지역보다 작은 편이다. 강원지역의 관광업체당 매출액의 경우 2014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코로나 시기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 들어 소폭 개선되었다. 또한 전북의 관광업체당 매출액은 평균 3억원 정도로 제주(9억원)나 강원(30억원)에 비해 적은 상황이다.

3) 관광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같이 7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4) 2021년 824개에서 2022년 601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전국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중소 여행사들이 대형 여행사와의 경쟁, 해외여행 상품 부재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폐업 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5) 전북지역 업체당 관광산업 매출액 증가율 평균(2013~2022년)은 2.6%이고, 전국은 7.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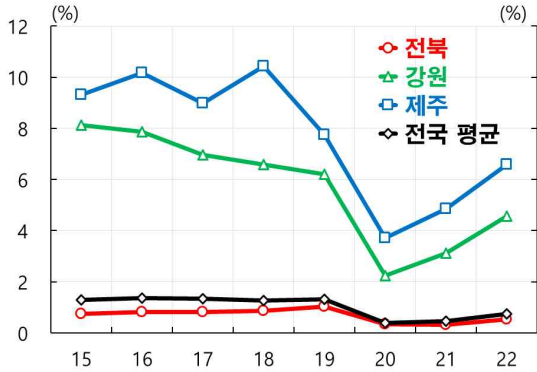
6) 전북지역 GRDP 대비 관광산업 매출액 비중 평균(2013~2022년)은 0.7%이고, 전국은 1.0%이다.

전북지역 GRDP 대비 관광산업 매출액 비중은 강원·제주보다 작은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은 상태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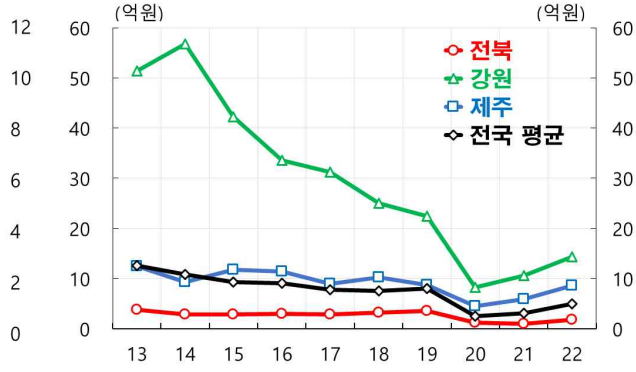
전북지역 관광산업 업체당 매출액은 강원·제주보다 작은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은 상태를 유지

[그림 2.3] GRDP 대비 관광산업 매출액 비중

[그림 2.4] 관광산업 업체당 매출액 추이



자료: 관광산업조사, 통계청



자료: 관광산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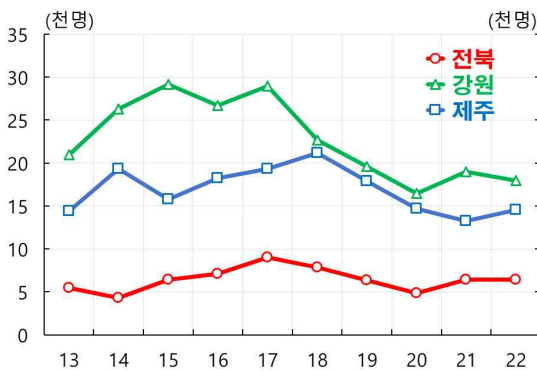
8. 전북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평균 6,340명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산업 취업자 대비 관광산업 종사자수 비중은 0.7% 정도로 전국(0.9%)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강원과 제주지역의 경우 전북지역에 비해 관광산업 종사자수가 많은 편이나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 관광산업 종사자수는 평균 6,340명 정도로 강원·제주지역보다 적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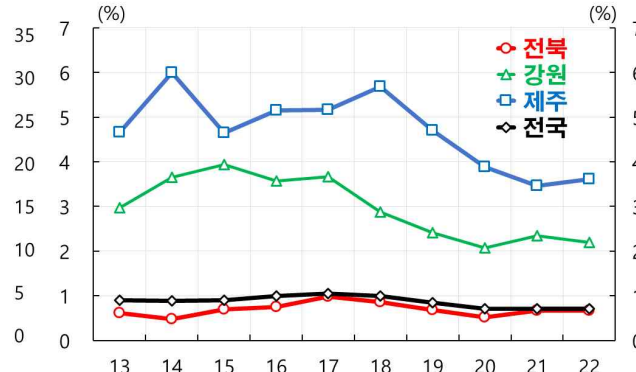
전북지역 전산업 취업자수 대비 관광산업 종사자 비중은 0.7% 수준

[그림 2.5] 전북·강원·제주의 관광산업 종사자수 추이

[그림 2.6] 전산업 취업자수 대비 관광산업 종사자 비중



자료: 관광산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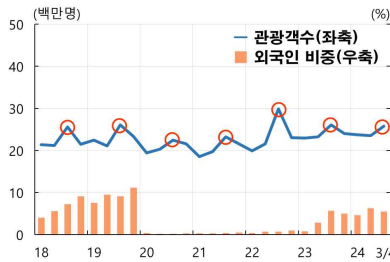


자료: 관광산업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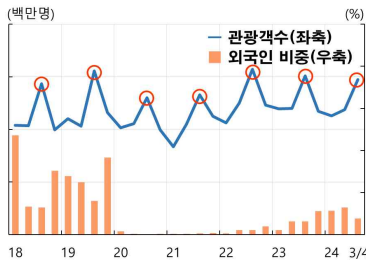
9. 전북지역 관광객은 여름철에 다소 집중되는 계절성을 보이는데, 이는 강원도의 뚜렷한 여름철 집중 현상이나 제주의 연중 고른 관광객 분포와 차별화되어 있다.7) 한편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전북·강원·제주지역 모두 뚜렷한 계절성을 나타내지 않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동 비중이 코로나 이전을 넘어선 반면 전북과 강원지역에서 동 비중은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지역 관광객은 여름철에 다소 집중되는 계절성을 보이거나 강원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고, 제주는 연중 고르게 관광객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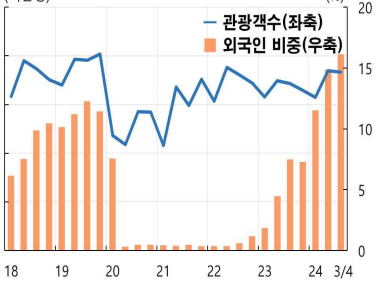
[그림 2.7] 전북지역 관광객수¹⁾



[그림 2.8] 강원지역 관광객수¹⁾



[그림 2.9] 제주지역 관광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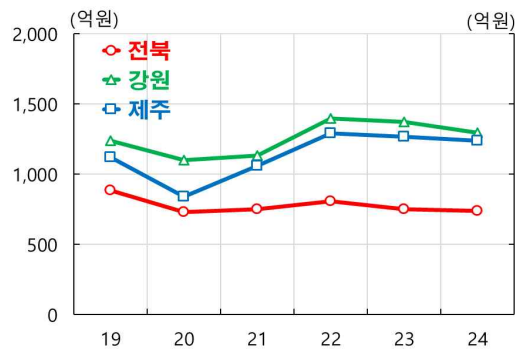


주: 1) 붉은 색 원은 여름철 계절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제주관광협회

10. 전북지역 관광객은 내국인을 중심으로 많이 회복되었지만 관광산업 관련 소비지출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소폭 적은 상황이다.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광 소비지출이 증가했고, 강원지역은 숙박비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관련 소비가 증가하였다.8)

최근 전북지역 관광산업 관련 소비지출액은 코로나 이전보다 소폭 적은 상황

[그림 2.10] 관광산업 관련 소비지출액¹⁾



2024년 전북지역 관광객은 내국인을 중심으로 회복

[그림 2.11] 코로나 이전(2019)¹⁾ 대비 2024년 관광객 회복률



자료: 관광산업조사

주: 1) 2019년 1~9월 관광객 기준
자료: 관광산업조사, 통계청

7) 제주지역 관광객 자료는 제주관광협회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전북과 강원지역의 경우 관광객 집계기 쉽지 않아 한국관광공사가 KT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상생활권 외의 장소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한 사람의 수를 집계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8) 강원지역 숙박업 소비지출은 2019년 194억에서 2023~24년 평균 210억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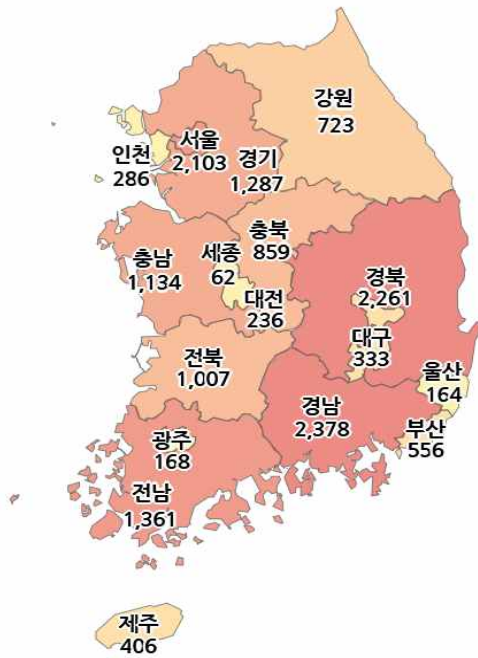
III. 전북지역 관광산업 특징

1)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11. 전북지역은 강원 및 제주지역에 비해 역사 및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국가유산은 1,007개(2024.8월 기준)로 우리나라 총 국가유산⁹⁾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등 국가지정유산이 325개로 강원이나 제주지역에 비해 풍부한 편이다. 또한 고창군 고인돌유적(2000년),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에 속한 왕궁리 유적과 익산시 미륵사지, 정읍시 무성서원(2019년), 남원시 가야고분군(2023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강원 및 제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북지역의 국가유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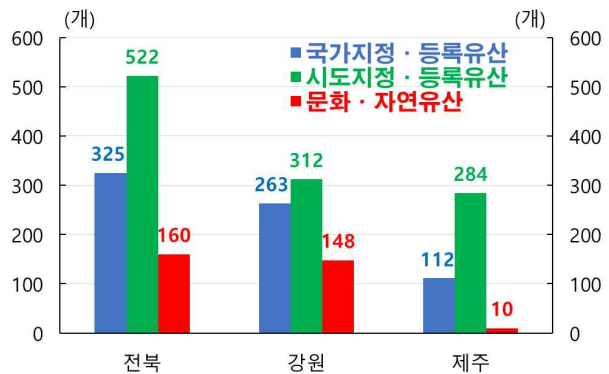
[그림 3.1] 국가유산 현황¹⁾²⁾



주: 1) 국가지정·등록유산 및 시도지정·등록유산 등의 총 개수
2) 색이 진할수록 국가유산이 많음
자료: 문화재청

전북지역은 강원 및 제주지역에 비해 국가(시도)지정·등록유산이 많은 편

[그림 3.2] 전북·강원·제주의 국가유산 비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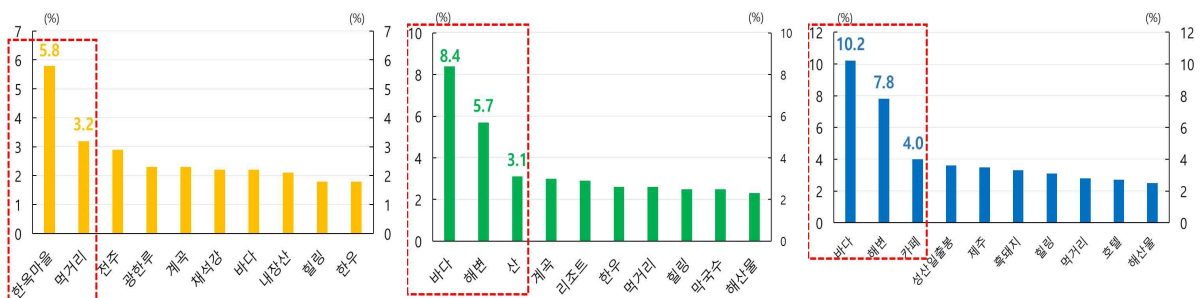
주: 1) 국가지정유산에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이 포함됨
자료: 문화재청

9) 최근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2024.5월).

12. 전북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관광후기도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북지역 관광객의 관광 후기에 '한옥마을'이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빈도(5.8%)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북지역 관광은 한옥과 같은 전통문화 시설 및 자원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강원 및 제주지역의 경우 관광 후기에 '바다', '해변', '산' 등과 같은 자연경관 관련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강조하는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북지역 관광객의 관광후기에 '한옥마을' 이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 3.3] 전북 관광객 리뷰단어 비중 [그림 3.4] 강원 관광객 리뷰단어 비중 [그림 3.5] 제주 관광객 리뷰단어 비중



자료: 컨슈머 인사이트(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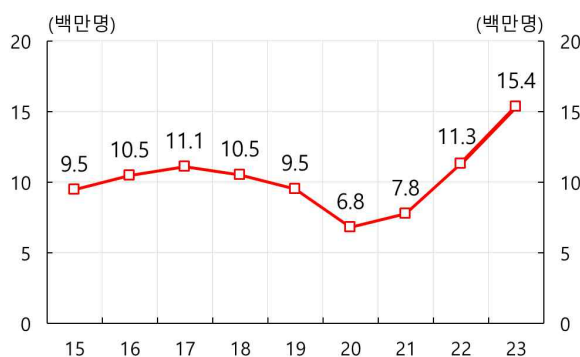
자료: 컨슈머 인사이트(2023년)

자료: 컨슈머 인사이트(2023년)

13. 실제로 2023년 중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은 역대 최대인원을 갱신한 가운데 코로나 이후 전주의 한옥마을 검색량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3년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1,500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옥마을에 대한 인터넷 포털 검색량 지수도 코로나 이전 평균 35 정도에서 코로나 이후 평균 65 정도로 큰 폭 상승했다.

2023년 중 한옥마을 방문객이 1,500만명을 초과 코로나 이후 한옥마을 검색량이 큰 폭으로 상승

[그림 3.6]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 추이



자료: 전주시청

[그림 3.7] 한옥마을 검색량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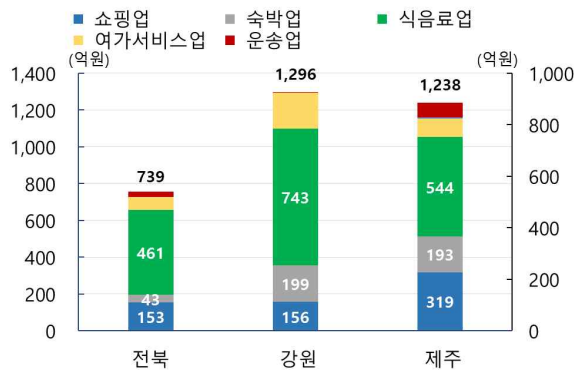
2 수준 높은 먹거리

14. 전북지역 관광객의 소비지출액에서 식음료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전북지역 관광객의 소비지출액을 업종별로 구분할 경우 식음료업이 461억원 정도로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강원(57%)이나 제주(44%) 지역에 비해 먹거리 관련 소비지출 비중이 큰 편임을 나타내고, 전북지역 관광은 식도락 관광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식당 및 음식관련 관광여행 만족도 서베이에서도 전북지역이 강원 및 제주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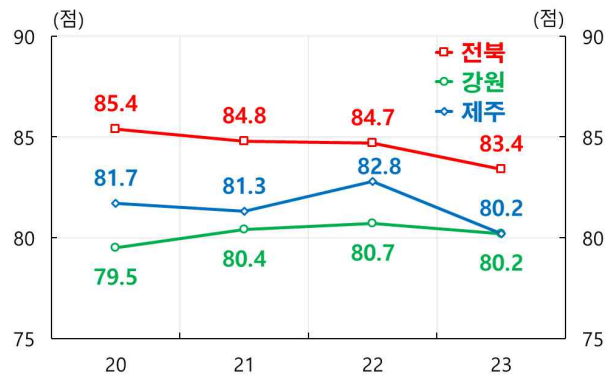
전북 관광객 소비지출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음료업

전북의 식당 및 음식관련 관광여행 만족도는 강원 및 제주에 비해 높은 편

[그림 3.8] 관광객의 '24년 소비지출액¹⁾



[그림 3.9] 식당 및 음식관련 관광여행 만족도



주: 1) 24년 4/4분기 데이터는 1/4~3/4분기 증가율을 평균한 전망치를 이용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15. 전북 지역먹거리 지수¹⁰⁾도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 2023년 전북 지역먹거리 지수는 전반적으로 등급이 높은 편인데, 특히 완주(S등급)와 전주·익산·군산·정읍(A등급)이 높다. 특히 완주군의 경우 전국 최다 로컬푸드 직매장(13개)을 중심으로 직거래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S등급을 획득하였다. 반면 강원 및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먹거리 지수는 평균 B등급 정도로 전북지역에 비해 소폭 낮은 편이다.

10)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의 추진정도와 지자체의 활성화 노력을 측정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전북 지역먹거리 지수가 전반적으로 등급이 높은 편

[그림 3.10] 전북 지역먹거리 지수

[그림 3.11] 강원 지역먹거리 지수

[그림 3.12] 제주 지역먹거리 지수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자료미제출)

자료: 바로정보(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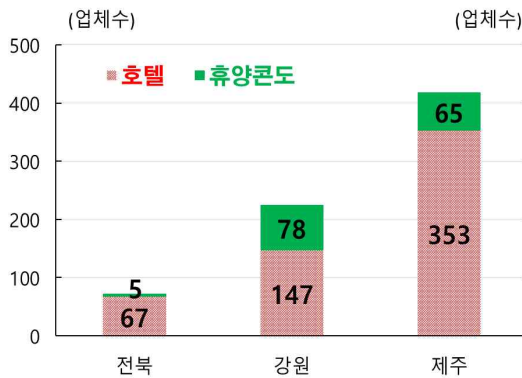
3 열악한 숙박 및 교통

16. 전북지역은 강원 및 제주지역에 비해 숙박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선호되는 숙박형태인 호텔이나 휴양콘도의 경우 전북지역은 강원이나 제주지역보다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2023년 전북지역 숙박여행 형태는 주로 가족 및 친지집(54%)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원(12%) 및 제주지역(2%)보다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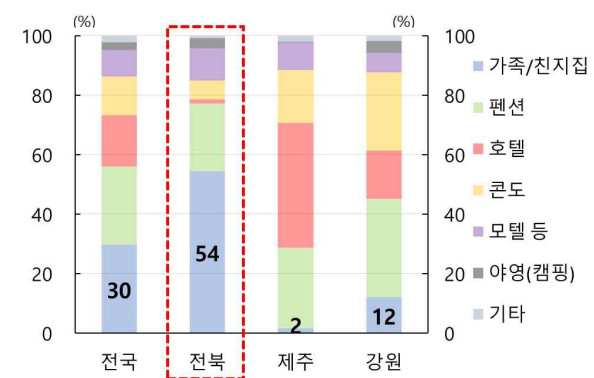
전북의 호텔 및 휴양콘도는 강원 및 제주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

전북지역 관광객은 가족 및 친지집에서 투숙하는 경우가 많은 편

[그림 3.13] 관광숙박업 등록현황(2023년)



[그림 3.14] 숙박시설 유형별 비중¹⁾



자료: 한국호텔업협회

주: 1) '모텔 등'은 모텔 이외에도 여관 및 소형숙박이 포함
 자료: 국민여행조사(2023)

17. 전북지역은 여행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전북지역 여행시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역에서부터 주요 관광지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이 힘든 경우가 많다. 버스를 탈 경우 자차나 택시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도보로 인한 소요시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주역에서 전북지역 주요 관광지 이동은 대중교통 활용이 어려운 상황

버스를 이용한 여행이 자차나 택시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

[그림 3.15] 전주역과 전북지역 주요 관광지

[표 3.1] 전북지역 주요 관광지 이동시간(분)¹⁾



	관광지	대중교통 ²⁾	차량
무료	전주 한옥마을	29(12)	14
	군산 시간여행 마을	87(6)	47
유료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144(31)	58
	남원 광한루원	55(7)	52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73(4)	40
	고창 고창읍성	133(24)	64

자료: 네이버 지도

주: 1) 전주역 출발 기준,
2) ()는 전체 이동시간 중 도보 소요시간
자료: 네이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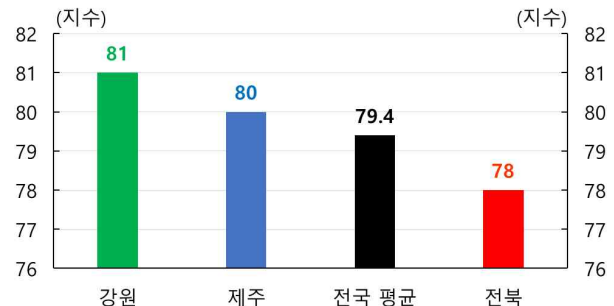
18. 또한 전북지역의 경우 낮은 렌터카 비중, 부족한 주차장 문제가 있는 가운데 교통문화지수도 상대적으로 낮아 관광객의 교통접근성이 취약하다. 전북지역 렌터카 비중이 2013년 이후 급속히 낮아지고 있어 렌터카 사용이 쉽지 않은 가운데 강원 및 제주지역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¹¹⁾하여 관광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 교통문화지수¹²⁾가 강원·제주지역보다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전북지역 렌터카 비중의 추이

강원·제주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전북지역 교통문화지수

[그림 3.17] 렌터카의 비중 추이(사용본거지 기준)¹⁾

[그림 3.18] 교통문화지수¹⁾



주: 1) 전국 렌터카 등록대수 대비 해당 지역 렌터카 등록 대수 비중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주: 1) 2007-2023년 평균
자료: 국토교통부

11) 2024년 전북지역의 주차장 수는 613개인 반면 강원 및 제주지역은 각각 1,080개, 978개로 전북지역 주차장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12) 교통문화를 운전행태영역(55점), 교통안전영역(25점), 보행행태영역(20점)으로 나타낸 지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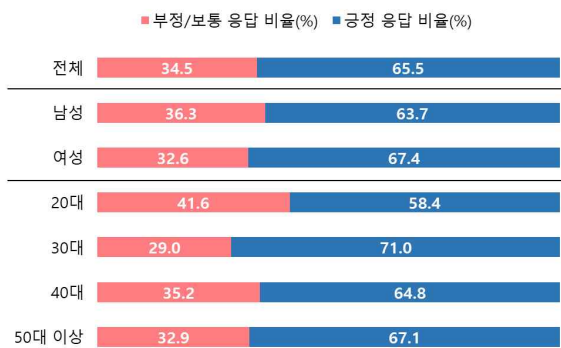
IV. 전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1 전북 관광자원과 먹거리를 융합한 복합 관광 활성화

19. 최근에는 단순 관람형 관광에서 벗어나 체험, 숙박, 식도락을 결합한 복합 관광이 인기가 많은 편이다. 설문조사에서 '국내여행 시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관광객의 비중이 70%에 달하는 등 체험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숨겨진 국내 여행지를 찾아 방문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관광객의 비중(67.2%)도 높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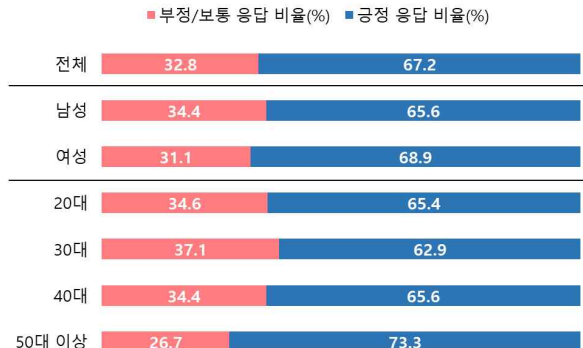
응답자의 대부분은 국내여행 시 본인만의 의미 있는 경험을 하거나 숨겨진 여행지를 방문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특별한 경험을 위한 지불 의향¹⁾



주: 1) 국내여행 시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사에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한국관광공사

[그림 4.2] 숨은 관광지 방문 의향¹⁾



주: 1) 숨겨진 국내 여행지를 찾아 방문하는데 관심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한국관광공사

20. 이러한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전북지역 대표 먹거리를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향토음식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상품은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운영되고 있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상품¹³⁾은 관광객의 호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내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주변 전통 한식당, 향토음식점을 연계하여 역사 체험과 전통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완주군은 치유농장과 소양고택에서 진행된 미식 체험 및 숙박 투어 상품을 시범 운영(2024.11월)하여 내 외국인인의 호평을 얻었으며, 수도권 관광객 대상으로 동 상품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주요 관광지 및 대표 먹거리를 연계한 복합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

[표 4.1] 도내 주요 관광지 및 대표 먹거리

지역	주요 관광지	대표 먹거리
전주	한옥마을	비빔밥, 콩나물국밥
익산	왕궁리유적, 미륵사지석탑	마마닭볶음탕 ¹⁾ , 우어회 ²⁾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고창읍성	풍천장어구이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구절초 테마공원	표고버섯덮밥, 산채정식
임실	옥정호, 치즈테마파크	소머리곰탕, 다슬기탕
무주	반디랜드, 덕유산	버섯전골, 어죽
진안	마이산, 꽃잔디동산	쏘가리매운탕, 산채비빔밥
남원	광한루원, 지리산 허브밸리	추어탕, 칩냉면

주: 1) 익산 특산물인 고구마와 마를 이용하여 만든 향토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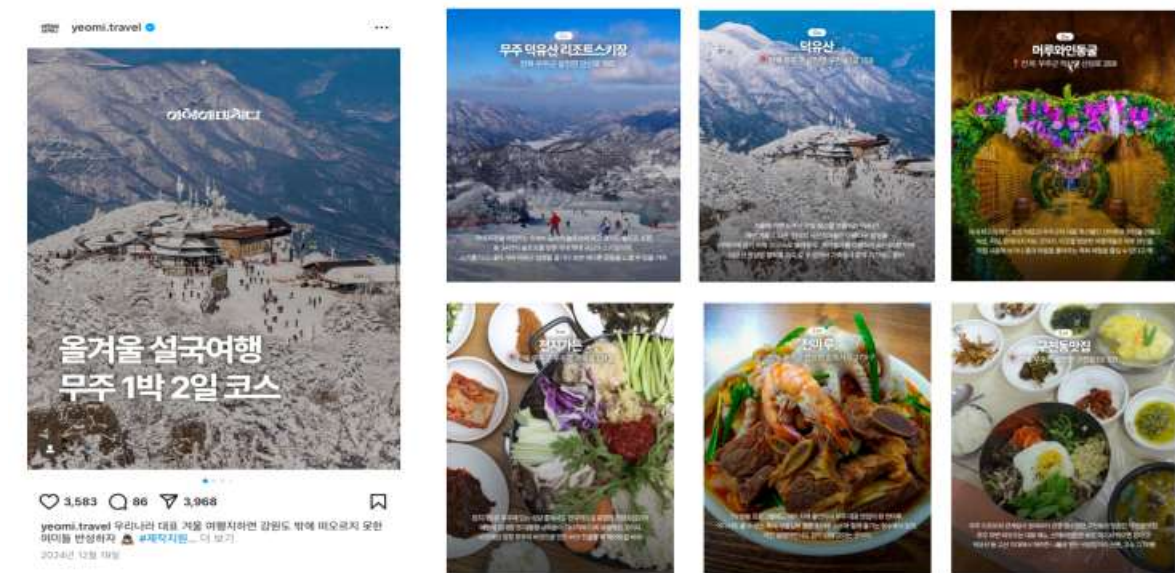
2) 익산 옹포면에 위치한 금강 인근에서 잡은 민물고기(우어)를 이용해 만드는 전통음식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21. 또한 전북의 미식·생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유튜브 등), 팝업이벤트¹⁴⁾ 등을 활용하여 전북의 미식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도내 각 지역의 역사와 음식 문화, 주요 관광지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한 여행 콘텐츠 제작은 도내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음

[그림 4.3] SNS를 활용한 지자체 관광 홍보 사례¹⁾



주: 1) 본 자료는 인스타그램의 여행 정보 제공 계정인 '여행에 미치다' 에서 무주군청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한 무주 내 주요 관광지 및 맛집 정보 게시물

자료: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14) 전북도가 서울에서 선보인 '전북 관광 팝업스토어' (2024.11월)와 같은 현지 맞춤형 체험 행사는 수도권 관광객과 외국인 대상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이외에도 현지 주민의 일상을 공유하는 생활 관광 관점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과 이용 팁을 전달하는 콘텐츠¹⁵⁾, 도내 노포 맛집과 전문 요리 강사가 협업한 쿠킹 클래스 등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러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참고 1 생활 관광 관련 콘텐츠 사례

‘시골마을 이장우(MBC)’는 배우가 1년간 김제 죽산면에 정착하며 폐양조장을 재생시키고 지역 특산물인 쌀로 막걸리를 개발하는 과정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방송을 통해 탄생한 ‘죽산주막’을 중심으로 카페, 공방 등 청년 창업가들의 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연간 생활인구¹⁶⁾도 5만명이 추가 유입되는 등 지역 활성화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지역 이해도가 높은 미식 전문가·유명인과 전북의 미식 자원을 결합한 장기 프로젝트로 지역민과 상생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골마을 이장우(MBC 프로그램)



자료: MBC

죽산주막



자료: MBC

15) 소규모 미식투어를 실시하거나 도내 맛집 관련 숏폼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16) 일 체류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인구수와 주민등록인구수의 합을 의미한다.

② 숙박 인프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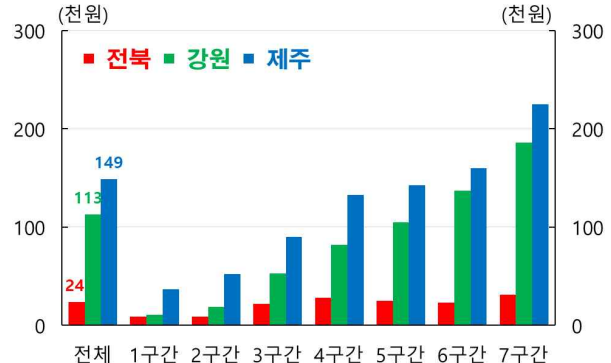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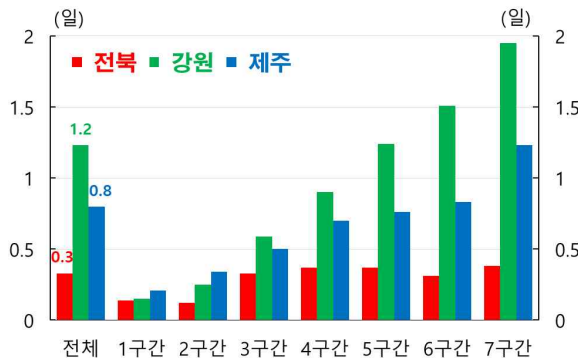
23. 전북의 경우 고소득 가구일지라도 숙박보다 당일치기 여행을 함으로써 관광 소비지출이 적은 편이다. 전북지역 관광객들의 1인당 평균 관광 숙박여행 일수와 1인당 평균 관광 숙박여행 지출액은 강원 및 제주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전북의 1인당 평균 관광 숙박여행 일수는 강원·제주에 비해 적은 편

전북의 1인당 평균 관광 숙박여행 지출액은 강원·제주에 비해 적은 편

[그림 4.4] 1인당 평균 관광 숙박여행 일수¹⁾

[그림 4.5] 1인당 평균 관광 숙박여행 지출액¹⁾



주: 1) 가구의 월소득을 1구간(월소득 100만원 미만)부터 7구간(600만원 이상)까지 7개 구간으로 설정
2) 2023년 기준
자료: 국민여행조사

주: 1) 가구의 월소득을 1구간(월소득 100만원 미만)부터 7구간(600만원 이상)까지 7개 구간으로 설정
2) 2023년 기준
자료: 국민여행조사

24.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유적지·생태관광 자원과 연계된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체류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주 한옥마을,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문화유적지 인근에 역사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숙박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¹⁷⁾ 또한 인근 생태관광 자원과 연계된 숙박시설이 제공된다면 투숙객들에게 새로운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7) 2024년 익산시 야간관광 프로그램(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이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확충될 경우 체류형 관광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2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숙박시설 조성 사례

영국의 이든 프로젝트는 남서부에 위치한 콘월(Cornwall) 지역의 폐광산을 세계적인 실내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중국, 두바이, 호주 등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성공적인 생태관광 혁신 사례이다. 이든 프로젝트는 지역 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호텔 건설도 추진(2023.1)하는 등 숙박 인프라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최근 익산시가 왕궁면에 도입을 계획(2025.1)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온실 정원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군위군 소재 사유원은 국내외 유명 건축가의 건축물과 레스토랑, 웰니스 프로그램이 연계된 수목원으로 외지인 관람객 비중(80%)도 높아 부지 내 호텔 건립도 추진중이다(송은정, 2023).

이든 프로젝트



자료 : 이든 프로젝트

군위 사유원



자료 : 사유원

25. 전북지역의 숙박 인프라와 치유 관광¹⁸⁾ 및 워케이션¹⁹⁾이 연계된 체류형 관광 상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워케이션과 치유관광은 장기체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두 관광 유형 모두 전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자연 친화적 입지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숙박 인프라를 기존 워케이션 및 치유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²⁰⁾

18) 전북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북을 치유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김형오·김수지·성효인, 2024).

19)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근무 형태를 의미한다.

20) 2025년부터 전북은 워케이션 거점을 기존의 4개(남원시·순창군·부안군·장수군)에서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각 지자체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워케이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3 관광지 접근성 개선

26. 신규 조성될 전주역사와 역사 인근 복합환승센터²¹⁾를 활용하여 도내 관광지 에 대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확충될 주차장 일부를 렌터카·카셰어링과 연계하거나 관광안내소에서 관광 상품 예약·관광지 입장권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시설이 본격 운영 되면 수도권에서 전주를 거쳐 도내 주요 관광지로 이어지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7. 기존 대중교통 수단(순환버스, 관광택시)에 대한 홍보 강화와 관광객의 카셰어링 이용 유도는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광역순환버스²²⁾(전북특별자치도 투어버스)와 관광택시 서비스²³⁾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관광객 분산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교통수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과의 제휴²⁴⁾를 통한 노출 확대도 검토해볼 만하다. 그리고 전북투어패스²⁵⁾와 연계한 카셰어링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개별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28. 또한 관광지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영 주차장을 확충²⁶⁾하는 가운데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관광지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간 주차면 확인·예약·결제 가능한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은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1) 전주역 증축 공사(2026년 완료 예정)를 통해 주차공간이 확보되며, 복합환승센터(2025.10월 완료 예정)에서 시내버스와 고속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복합환승센터 내 통합관광안내소·관광객 편의시설·관광 유관기관·회의실이 입주할 계획이다.

22) 도내 순환노선·수도권 연계·KTX역 연계 노선이 운영중이며, 도내 각 지자체의 주요 관광지를 1~2일 방문하는 여행상품이다.

23) 전주시·남원시·익산시·부안군 등에서 운영중이며, 각 지역별로 시간제 관광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24) 남원시·제천시·순천시·평창군 등 4개 지역의 관광택시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대상 프라이빗 택시 상품을 출시(2024.11)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25)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의 유료시설·맛집·숙박·공연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이다.

26) 전주시는 2027년까지 1,400억원을 투입하여 한옥마을 등 시내 주요 지역에 2,735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참고 3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도입 사례

경기 파주시는 운정호수공원 내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전방위 영상 유도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2024.8)하여 시범 운영중이다. 실시간으로 빈 주차면이 안내되며, '내 차 찾기 서비스'도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트레비소는 도심 전역과 외곽 지역 2,388개 주차면을 대상으로 주차 가능 정보 및 모바일 앱(TrevisoApp) 주차요금 결제 서비스를 포함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운영중(2010.1)이다. 동 시스템으로 주차 탐색 시간이 감소하고, 주차장 회전율이 향상되어 교통 체증이 줄어들었으며, 효율적인 주차장 사용이 가능해져 주차 티켓 발급 건수와 주차료 수익이 증가²⁷⁾하였다. 또한 자전거 공유 및 카셰어링 서비스와의 연동으로 추가 주차공간 수요도 감소하여 당초 계획했던 250면 규모의 지하 주차장 건립을 취소하는 등 비용 절감 성과도 달성하였다.

27) 주차 티켓 발급 건수가 2010년 131,000건에서 2016년 161,00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료 수익도 6년만에 60% 증가하였다.

V. 결론 및 시사점

29.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관광산업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전북 지역은 관광산업을 전북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육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전북지역의 관광산업은 다소 정체된 상황이다.
30. 전북지역의 관광산업 규모는 관광산업 발전도가 높은 제주와 강원지역보다 작은 가운데 매출액과 관광산업 종사자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내국인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관광객이 회복되었으나 관광산업 관련 소비지출액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소폭 적은 상황이다.
31. 전북지역 관광산업은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수준 높은 먹거리를 보유한 강점이 있으나 열악한 숙박 및 교통인프라 등은 보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의 국가유산이 강원 및 제주지역에 비해 풍부하고, 전북지역 관광객의 소비지출 중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그러나 선호되는 숙박 형태인 호텔 및 휴양콘도의 수는 강원이나 제주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고 관광객의 교통접근성도 취약한 상황이다.
32. 향후 전북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유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관광자원과 먹거리의 연계 강화, 홍보 다각화, 생활 관광 확대를 통해 체험·숙박·식도락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특색있게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가운데 위케이션과 웰니스 관광이 연계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의 소비 지출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접근성 개선과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구현희·김용재·이준성(2023), “부산·경남지역 관광업 발전방안”, 한국은행 경남본부·부산본부

김수진·조현명(2019),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한국은행 전북본부

김태호·민상오(2022), “제주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발전과제”, 한국은행 제주본부

김형오·김수지·성효인(2024),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연구”, 전북연구원

김효정(2024), “강원지역 관광업의 홍보 요인과 개선방안”, 한국은행 강원본부

박지섭·고아라·김지은(2023), “코로나19 이후 전남지역 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

송은정(2023), “민간자산 기반의 협력형 지역관광 전략 - 군위 사유원을 중심으로”, 경북연구원

이용호·임연수·고종석·이유진(2023), “문화컨텐츠, 숙박여건, 교통을 중심으로 살펴본 대구지역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이유경(2024),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관광경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 한국은행 제주본부

한국관광공사(2023), “2024 관광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